

# 하느님의 선물인 삶의 시간

- 대구 파티마병원 -

## 의사

### ▶ 주소

- 나이/성별 : 60/남자
- 전신 쇠약감 및 호흡곤란

### ▶ 현 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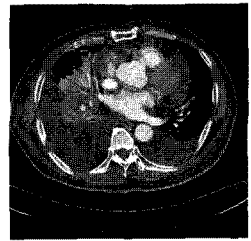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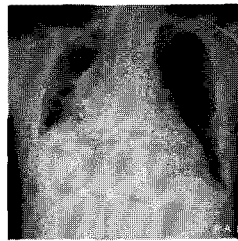
- 2007년 8월, 비소세포성 폐암 3기 진단
-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방사선 치료 및 항암화학요법 시행
- 2008년 1월, 폐암이 진행되어 항암제 변경하여 2차 항암화학요법 시행
- 2008년 3월, 항암화학요법 시행 중 전신 쇠약감 및 호흡곤란 악화로 입원

### ▶ 과거력

~ 당뇨, 고혈압, 결핵, 간염 (+, +, -, -)

### ▶ 이학적 소견

-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 안정
- 양하지 함몰부종



### ▶ 진단

- 비소세포성 폐암 4기
- 당뇨병성 신병증

### ▶ 계획

1. 영양공급 및 치료적 가슴마약 천자
2. 당뇨병성 신병증에 의한 부종 및 혈압조절
3. 항암화학요법의 변경
4. 호스피스 팀 접근 (2008 5. 15~2008. 7. 23)

간호사

▶ 대상자

- 이○○ M/60
- 진단명 : 비소세포성 폐암
- 재원 기간 : 2008. 5. 16~ 2007. 7. 23
- 호스피스 등록 : 2008. 5. 16

▶ 개인력

- 성격 : 평소 조용한 성격이며 꼼꼼한 편으로 대화 시에 말수가 적음.
- 종교 : 천주교(처음 입원 시 종교가 없다고 대답했으나 성당이 어디냐고 묻고 가겠다고 하여 사정하니 냉담 중이었으나 풀고 싶다고 말함.)
- 병식 : 있음
- 지지체계 : 30년 전 이혼하였으며 아들이 있으나 이혼 후 부인, 아들과 연락을 않고 지냈으며 혼자 살았음.

▶ 환자사정 (1)

- 의식 : 명료
- 식이 : 일반식
- 피부 : 건조하며 다리와 발에 부종이 있는 상태
- 배변 : 1회/2-3일
- 배뇨 : 자연배뇨를 하나 기력저하로 화장실사용이 스스로는 힘들어 부축해서 가능.
- 일상생활 정도 : PPS 50% (ECOG3)

▶ 환자사정 (2)

호흡곤란

- 입원당시 O<sub>2</sub> 3l/min 사용하며 이후 O<sub>2</sub> 5l/min 로 증량했으며 이후로도 답답함 호소할 때마다 기관지 확장제 흡입이나 morphine을 투여하여 조절함.

통증

- 기침이 심할 때 가슴이 결리듯이 아프다고 함.
- 통증조절 : 입원 당시 codeine 20mg qid(하루80mg) 경구투여 중이었으며 잦은 발작성 기침으로 인하여 결린 듯이 아프다며 통증 호소하여 codein 하루 100mg로 증량함.
- 통증 심할 시 p.r.n.으로 IR codon 1T 복용함

▶ 간호 진단

- #1 환기-관류 불균형과 관련된 비효율적 호흡양상
- #2 질병악화와 관련된 절망감
- #3 지지체계부족과 관련된 외로움
- #4 영적고뇌

#1 환기-관류 불균형과 관련된 비효율적 호흡양상

- 주관적 자료
  - “숨이 차요”
  - “가슴이 답답해요”
- 객관적 자료
  - ABGA 검사 상 PO<sub>2</sub> 77.2mmHg SPO<sub>2</sub> 91% check, RR 24회/min
  - 산소와 기관지 확장제 흡입 하고 있음.
  - 안절부절하며 식은땀 흘리고 있고 앉아있음.

- 간호목표
  - 호흡이 편안해진다.
  - 호흡곤란 호소를 하지 않고 편안하다고 말한다.

- 중재
  -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호흡 양상을 관찰한다.
  - 주치의에게 환자상태를 알린 후 산소투여를 증량한다.
  - 안심시켜주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자세를 돕는다.
  - 병실이 답답하지 않도록 환기를 시켜주고 시원한 환경을 조성한다.
  - 작은 선풍기를 얼굴 쪽으로 향하게 틀어준다.
  - 많이 심하면 morphine을 투여하기 위해 주치의와 상의한다.

- 평가
  - 호흡이 안정 누워있음.
  - “이젠 괜찮다”고 말함.

## #2 질병악화와 관련된 절망감

- 주관적 자료
  - “숨이 차서 죽고 싶다”
  - “이렇게 힘든데 왜 빨리 안 죽어”
- 객관적 자료
  - 한숨쉬는 모습이 자주 보임
  - 말수가 적어지고 소극적인 태도임.
- 간호목표
  - 표정이 밝아지고 대화에 참여한다.
  - 자연스럽게 본인의 감정을 표현한다.

- 중재
  - 신체적 증상 완화 후 현재 감정상태에 대해

- 대화 나누어 알아본다.
  - 감정상태를 말로 표현하도록 돕는다
  - 대화의 시간을 가질 때 여유 있는 태도로 일관하고 침묵 시에도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준다.
  - 관심을 가지고 자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 증상을 충분히 조절한다.
  - 원하면 원목 신부님이나 수녀님의 도움을 요청해준다.

- 평가
  - 처음 대화시도에는 별로 말수가 없었으나 자주 만나면서 표정이 밝아지고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함.

## #3 지지체계부족과 관련된 외로움

- 주관적 자료
  - “나는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 객관적 자료
  - 혼자 지내며 방문객이 없음.
  - 말없이 조용히 침대에서만 지내는 모습이 많음.
  - 오래전 이혼 상태로 연락 닿는 가족이 아무도 없음.
  - 병실의 다른 가족들을 부럽게 보기도 하고 아이들이 인사하면 기쁘게 받아들임.
- 간호목표
  - 주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 자신을 수용하고 지지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한다.

- 중재
  - 외로움이나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한다.

-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병실을 자주 방문하고 충분한 시간 함께 한다.
- 병동의 행사나 정원 가꾸기에 참여시켜 외로움이 감소될 수 있게 한다.
- 무료한 병실 생활에 흥미를 가질 만한 것들을 사정하여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해준다.
- 자원봉사자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게 주선한다.
- 가족에 대한 감정상태를 사정하고 만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에게 자문을 구한다.
- 30년 동안 만나지 않았던 아들과 부인을 만날 수 있도록 주변사람들에게 확인 한다.

• 평가

- 표정이 밝아지며 농담을 하기도 함.
- 자원봉사자와 지속적으로 만나며 만나는 시간을 기다림.
- 연락된 아들과의 만남에서 기뻐하고 충만함을 느낌을 표현함.

#4 영적고뇌

• 주관적 자료

- “나는 종교가 없어요”
- “성당이 어디 있나요?”

• 객관적 자료

- 종교에 관련된 이야기 할 때 불쾌감 나타내다가도 관심을 표현함.
- 천주교 신자이며 냉담중이나 아침마다 기도하는 모습보임.
- 원목 수녀님, 신부님 방문 시 외면 함.

• 간호목표

- 영적갈등의 원인을 파악한다.
- 신앙의 갈등을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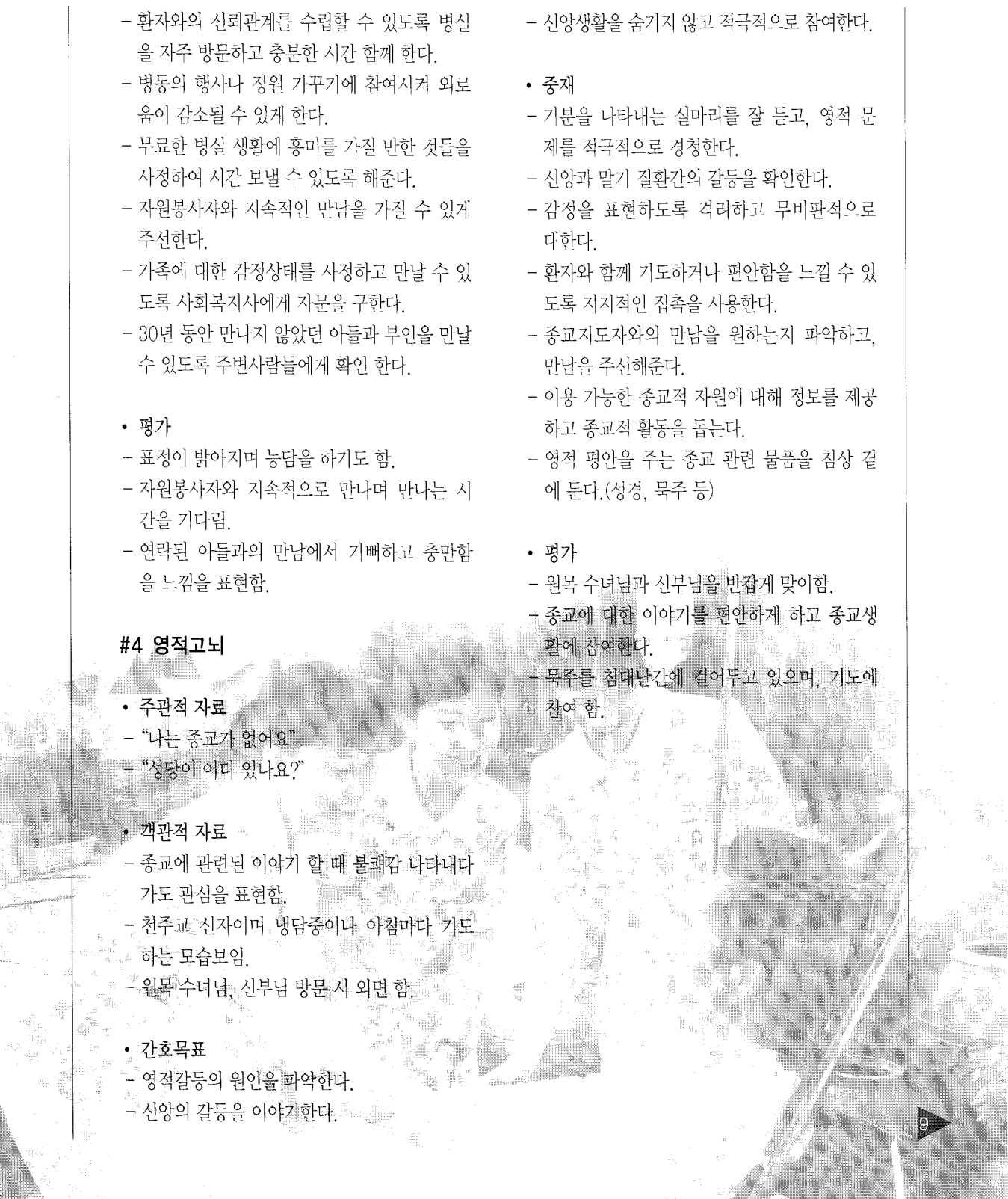
- 신앙생활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중재

- 기분을 나타내는 실마리를 잘 듣고, 영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 신앙과 말기 질환간의 갈등을 확인한다.
-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무비판적으로 대한다.
- 환자와 함께 기도하거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지적인 접촉을 사용한다.
- 종교지도자와의 만남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만남을 주선해준다.
- 이용 가능한 종교적 자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종교적 활동을 돕는다.
- 영적 평안을 주는 종교 관련 물품을 침상에 둔다.(성경, 묵주 등)

• 평가

- 원목 수녀님과 신부님을 반갑게 맞이함.
-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고 종교생활에 참여한다.
- 묵주를 침대난간에 걸어두고 있으며, 기도에 참여 함.



사회복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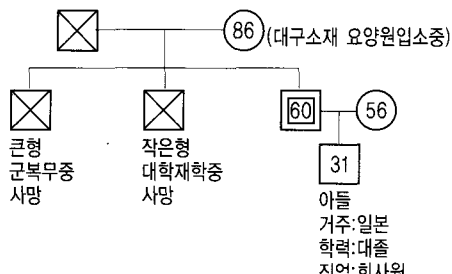
1. 환자의 일반적 사항

- 성 명 : 이○○님
- 성 별 : 남
- 연 령 : 60세
- 주 소 : 대구 동구 ○○동(임시 거주지)
- 직 업 : 현재 무직(입원 전 ○○음악카페 및 ○○찜질방에서 도우미)
- 종 교 : 천주교(호스피스 전원 당시 냉담 중)
- 주거형태 : 현재 없음(입원 전 근무지에서 숙식해결)
- 학 력 : 대졸
- 경제상태 : 하(신용불량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월26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통장잔고 150만원)
- 의료보장 : 의료급여 1종 (21)
- 진 단 명 : 폐암 말기
- 호스피스 전원일 : 2008. 5. 15

2. 정보제공자

- 환자의 사회후배(남/55세) - 찜질방 도우미, 실질적 보호자 역할 수행 중
- 환자의 전 부인(여/58세) - 무직
- 환자의 전 처남(남/60세) - 변호사, 환자와 친구사이였음

3. 가족의 가계도



4. 의뢰 경위

2008. 5. 14 환자의 후배인 이○○씨가 사회복지사를 방문하여 환자의 호스피스 케어를 위한 전실 및 간병, 진료비문제를 의뢰하면서 개입하게 됨.

5. 환자의 개인력

- 60세. 대구출생. 3형제의 막내였으나 미혼인 상태에서 형들이 사망. 대졸
- 친구의 여동생과 결혼하여 1남을 두었으나 3년간의 결혼생활과정에서 환자의 외도, 도박 및 경제적 무능함으로 인해 30년 전 이혼하여 가족과는 연락두절 인 상태임.
- 3년 전부터 친구가 운영하는 음악 카페 및 찜질방에서 도우미를 하며 숙식을 제공받으며 생활하고 있음.
- 입원 후 후배 이○○씨에게 경제적 문제를 제외한 도움을 받고 있는 중임.

6. 가족력

1) 환자의 모 (여/ 86세)

- 대구소재 양로원 입소하여 생활 중임.
- 환자가 7-8년 전 면회한 것이 마지막임.

2) 환자의 전 처 (여/ 58세)

- 대구출생. 아들의 근무지인 일본에 거주중임.
- 환자와 이혼 후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IMF때 사업실패 후 6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음.
- 환자에 대한 부정적 생각과 동정심을 함께 지니고 있으나 아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역할은 수행 하려는 노력을 보임.

- 환자가 아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을 염려하여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는 없음.

### 3) 환자의 아들 (남/ 31세)

-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환자와는 연락두절 상태였음.
- 대학 졸업 후 외국인회사에 취업하여 현재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음.
- 모의 부채를 갚고 있는 상태이며 평소 향후 환자의 행방을 찾고 싶다고 희망하였다고 함
- 환자의 소식을 접하고 환자에 대한 부정적 생각과 동정심을 함께 지니고 있으나 현재 모의 부채상환 중에 있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7. 문제사정

### 1) 심리사회적 측면

#### ① 정서적 고립

- 환자의 정보노출(개인력, 종교)을 극도로 싫어함 “그런 걸 왜 물어요? 그런 거 물을꺼면 오지 말아요!” “수녀님이 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하셔서 나한테 오는 것이 싫어서 이야기하기 싫은데... 천주교예요”

#### ② 가족해체로 인한 일차적인 지지집단 부족

- 정서적 지지 부족
- 간병인 부재

#### ③ 장례문제

- 환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는 있으나 역할수행을 위한 가족의 부재로 원활한 장례진행의 어려움

### 2) 경제적 측면

#### ① 진료비 문제

- 비 급여 진료비부담 및 지속적인 유료간병인 이용의 어려움

#### ② 주거 문제

- 거주지가 없는 관계로 증상호전의 경우 가정 호스피스 연계의 어려움

## 8. 개입계획 및 활동

### 1) 심리사회적 개입

#### ① 병실 Rounding 과정에서 단계별 접근(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 환자의 태도변화를 유도하여 죽음준비의 정도, 가족관계, 욕구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사회복지사를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게 함.
- 지속적으로 죽음수용과 준비에 대한 개별상담을 실시함.

#### ② 야외나들이 프로그램 참여 유도 및 실시

- 매주 실시하는 야외나들이 프로그램(팔공산 산책 및 점심)참여를 통해 산소호흡기 의존도를 줄이고 활동량을 증가시킴.

#### ③ 가족관계회복을 통한 정서적 지지

- 여러 차례의 시도를 통해 가족(전처, 아들)행방을 찾음.
- 가족과의 지속적인 전화상담과 메일을 통해 환자와의 관계회복을 시도함.
- 아들의 1차례 병원방문이 이루어졌으며 정기적인 안부전화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향후 가족들이 환자의 장례과정에서 역할 수

행키로 함.

④ 무료간병인 지원

- 지역자원(관할 동사무소, 자활후견기관)연계 사업을 통해 무료간병인(주5일, 오전9시-오후6시)을 배치하여 환자의 신변보호 및 소외감이 감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

2) 경제적 개입

① 진료비 지원

- 관할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계(긴급복지 지원사업)하여 진료비(973,870원)지원함
- 보건소 암환자 치료비 지원(100만원) 연계함.

② 요양병원 유료 간병비 감면

- 퇴원계획에 앞서 환자와 함께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거주지를 결정함.
- 요양병원 유료간병비를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감면함(본인부담 : 월25만원책정)

3) 기타 개입

① 지속적인 사례관리

- 정기적인 전화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황을 파악함.
- 2주일에 1회 요양병원 방문을 통해 물건구입, 나들이를 실시하고 있음.
- 정기적으로 가족(일본거주)에게 메일을 통해 환자의 근황 및 상태에 대해 알려주고 안부 전화를 독려함.

② 모(요양원)와의 관계회복

- 상담을 통해 모에 대한 죄의식을 감소시키고 요양원방문을 임종 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와 함께 방문예정임.

③ 장례준비

- 묘지선정 및 장례방법에 대해 환자와 가족 상담을 실시함.



원목자

영적 돌봄

▶ 환자

- 이 00님 : 60세
- 병명 : 폐암말기

▶ 환자의 주변 사항

그는 대학 출신으로 지적이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다. 호스피스에 오기 전 일반병동에서는 의료적 측면만 수용하고 그 이외의 대인관계는 극단적으로 폐쇄적이었고 특히 종교적인 어떤 이야기도 회피하고 거부하였다.

▶ 사회적인 측면

주소가 있으나 친구의 주소지이고 거기서 막노동으로 살아왔으며 신용불량자 상태였다.

▶ Life story

부유한 가정에서 대학교육을 받고 열심한 가톨릭 부모 밑에서 자랐으며 결혼은 30여 년 전 관면 혼배를 하였으나 1년 동안 아들 하나를 낳고 부부는 헤어졌으며 전부인의 이야기로는 도박과 폭력 등으로 인해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하였다.

현재 그는 신용불량자로서 30년 동안 아들의 소식을 모른 채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았으며 그래서 병을 얻고 일반병동에서 호스피스병동으로 의뢰되어 왔다.

▶ 가족의 반응

- 아들 : 호스피스에서는 사후의 문제 때문에 아들의 외가를 통해 수소문하여 부자간 30년 만에 만나게 하였다. 환자인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아들은 이런 상태로 연락 하느냐고 원망 하였으나 막상 만나게 되자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측은지심으로 수용하는 모습 이었다.
- 전부인 : 혼자 아들과 살면서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여 인간적이고 신앙적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환자가 옛날에 가톨릭 신자이었던기에 적어도 죽기 전에 회개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만났다. 지금은 미움도 원망도 없이 그냥 아들이 자기 아버지로 인해 불이익을(신용불량자) 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들의 거처는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목실로 연락만 취하였고 지금은 자신의 거처를 밝히며 호스피스에 도움을 요청 하였다.

▶ 환자의 심리적 측면

일반병동에서 호스피스로 전원 되면서 서서히 마음을 조금씩 열었으며 자신이 가톨릭 신자 이었음을 고백하고 기도했음을 표현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고 특히 전처와 아들과의 연락과 만남이 환자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많은 영향이 미쳤다고 생각 되었다.



## ▶ 영적측면

그 동안 환자가 가지고 있던 죄책감(하느님, 전처, 아들)과 암이라는 병으로 인한 무게에서 서서히 용서받은 체험으로, 또 스스로의 삶을 용서한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함으로써 신앙도 다시 찾고 상처 난 영혼과 마음을 치유하게 됨에 따라 어느 정도 육신의 치유도 따르면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지금은 산소도 필요 없이 요양원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호스피스에서 퇴원 후 2주가 지난다음 요양원을 방문하였는데 이제는 많이 건강해진 상태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느님이 주신 유예의 시간을 보내면서 해맑은 웃음으로 호스피스 팀을 맞이하였다. 지금은 아무것에도 어떤 것도 더 바랄 것 없는 마음

으로 농담까지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여유가 보였다. 그에게는 86세가 된 노모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호스피스 팀은 다시 3주 후 그가 있는 요양원을 방문 하여 어느 노인요양원에 있다는 노모를 만나기 위해 수소문하였고 노모가 특별히 좋아하신다는 봉숭아와 사탕을 준비하였는데 요양원이 옮겨진 상태라 다음으로 미루고 돌아왔다. 노모가 살아있다는 확인만으로도 그는 한없이 행복한 눈물을 많이도 흘렸다. 하느님은 그에게 마지막까지 그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마무리 하도록 기다리신 것 같았다. 다음주에 노모가 있는 곳을 다시 확인 한 후 호스피스 팀과 함께 방문을 약속하고 돌아왔다. 여러 가지 자신이 저야 될 삶의 무게를 거부하지 않고 이제는 조용히 순응하는 그의 모습에서 영적안녕이 신체적 안녕에 함께함을 볼 수 있었다.



자원봉사자

다리를 꼬면 인생이 꼬입니다

예수의 이00님  
 긴장한 몸이었다. 발이 베드에 닿을 정도로 키도  
 컸고 용모도 준수했다.

“다리를 꼬면 인생이 꼬입니다.”

그와의 첫 대면은 내가 그의 꼬인 다리를 풀어주  
 면서 시작이 됐다.

“건강한 사람도 다리를 꼬면 허리가 꼬인 대요 .  
 허리가 꼬이면 인생은 따라서 꼬이고요.”

“이게 편해서요.”

“아직은 아닌 나이에 호스피스병동으로 들어오  
 신 원인 중 하나가 그 다리를 꼬는 습성 때문이  
 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그가 멧쩍게 웃었고 그 순간 우리는 속을 틀어놓  
 을 수 있는 사이로 급진전을 했다.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팔짱을 낀다든가, 다리를  
 꼬는 자체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편이고 보면  
 그 속내가 지피지고도 남을 일이긴 했다.

“젊은 시절 엇갈을 좀 걸었지요. 돈도 많기도 벌  
 었고 쓰기도 원 없이 썼지요. 한 마디로 기고만  
 장이었다고나 할까요. 한 치 앞을 모른 게 인생  
 이던 것을.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가정은  
 조각이 나버린 지 오래였고, 건강도 저당이 잡  
 혀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  
 니다. 지친 몸뚱이밖에는요.”

핏기 없는 그의 얼굴 위로 회한이 스쳐 지났다.

“하느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어떤 모  
 습으로 살고 싶으세요?”

“혼자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족의 소중함을  
 절대 이해 못 합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으며 자식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참회 앞에서 나는 남자만큼 어리석은 동물  
 도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자위가 붉  
 어지고 있었다.

“다리는 언제부터 꼬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보니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다리  
 도 꼬기 시작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제 생각엔 다리를 꼬기 시작하면서 인생도 꼬이  
 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  
 니다.”

저 인물에, 대학까지 일류를 나왔다니 아내역시  
 아름답고 현명했으리라. 태양은 늘 중천에 떠 있다  
 는 착각으로 젊음을 탕진한 부류의 말로를 보고 있  
 는 것 같아 마음이 개운치를 못했다.

“가족들과 연락은 하고 지내세요?”

“무슨 염치로요.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도 않  
 아요. 아들이 하나 있지만 제 엄마를 따라 갔지  
 요. 뭐 해 준 게 있어야... 예서 더 죄를 지었다  
 간 죽어서도 지옥을 가게 될 것 같아 솔직히 겁  
 이 납니다. 내 존재를 들어 내지 않는 것만으로  
 도 그들에게 도움은 될 것입니다.”

과장수녀님의 배려와 복지사의 도움으로 그는  
 병원비 걱정에서 헤어날 수가 있었고, 카톨릭에 귀  
 의하면서 건강도 거칠맛처럼 찾아가고 있었다. 사  
 랑의 힘은 위대했다.

암은 지루하고 긴 병이다. 환자 못잖게 보호자도  
 피를 말리게 하는 병이 암이다. 그래서 원목신부님  
 이 착안해낸 것이 밥 봉사였다. 한 주일에 한 끼나  
 마 집에서처럼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자 것이 신부

님의 취지였고 처음에는 사제관에서 밥을 지어 나르고 이제는 호스피스 단독 배선실까지 받아서 시작한 것이 어언 오년을 넘어서고 있다. 죽음이 코앞인 환우들과 그 보호자들에게 신부님과 수녀님 정성이 담긴 밥상은 임금님 수랏상이 그만할까 싶게 호응도가 높았고 그 가장자리에 이○○님이 끼어있었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이 소원인 그에겐 세상에 돌도 없는 밥상이었을 것이다.

폐암 말기로서 가쁜 호흡을 하면서 산소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이제는 그렇게도 극심했던 시간이 지

나가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그에게 유예 삶을 선물하신 것 같다.

갈 곳이 없어 퇴원을 못하고 있던 그에게 호스피스에선 영양소를 알선했고 그는 지금 그곳에서 자신을 추스르며 생을 정리하고 있다. 모르는 해도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후 침으로 누리는 안락함이 아니겠는가 싶다.

+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무릎 꿇어 두 손을 모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 빈손이 주는 행복

당신이 진정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길 원한다면  
움켜쥐는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한 사람의 손을 잡으려면  
한 사람의 가슴을 품으려면  
빈손일수록  
더 깊게 밀착할 수 있는 것  
당신이 진정으로  
영원한 사랑을 만들고 싶다면  
집착도 욕심도  
모두 버려야 합니다  
당신의 손에 묻은 땀국물로 인해

당신의 손에 남은 지꺼기로 인해  
보석같은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먼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찾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엮고 싶다면  
빈손이 주는 행복을  
잊지 마세요